



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과 문화 간 의사소통 관계

Cultural Capacity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of Nursing University Students

지도교수 이예은 유현정, 김관희, 박진희, 이하정, 박보미, 박주희, 박수빈, 반민주, 임지현, 박준후

I 연구의 필요성

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, 우리나라의 보건의로 현장에서 어렵지 않게 외국인을 접할 수 있다. 낮은 문화적 역량은 외국인 대상자를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, 의사소통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. 상대방의 문화와 가치를 수용하지 않거나, 존중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이루어 질 수 없고, 간호현장에서 부적절한 의사소통은 대상자간의 신뢰적 관계 형성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대상자의 안전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.

간호학생들은 후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비 전문인으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역량과 의사소통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.

II 연구 목적

본 연구의 연구 목적은 간호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역량과 의사소통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위함이며,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.

1.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의 차이를 파악한다.
2. 연구대상자의 문화적 역량과 문화 간 의사소통 정도를 파악한다.
3. 연구대상자의 문화적 역량과 문화 간 의사소통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.
4. 연구대상자의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.

III 연구 방법

1. 연구 설계: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.

2. 연구 대상
C도에 위치한 6개 대학교에 재학중인 간호대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.

3. 자료수집 기간
2019년07월17일 ~ 2019년09월09일 위 기간 동안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.

4. 자료분석 방법
SPSS/WIN 22.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.
(t-검정, 분산분석, 상관관계 분석, 회귀분석)

5. 연구도구
① 문화적 역량 측정도구(단축형)는 채덕희(2013) 14문항,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.
② 문화간 의사소통능력 측정도구는 이은미(2011) 40문항,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.

IV 연구 결과

[표1] 일반적 특성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의 차이 (N=200)

| 일반적 특성 | 구분 | n(%) |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| | |
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|
| | | | M(SD) | t/F | p |
| 성별 | 남 | 55(27.5) | 117.53(14.95) | 0.657 | .512 |
| | 여 | 145(72.5) | 118.93(12.89) | | |
| 학년 | 1학년 | 36(18.0) | 118.67(11.08) | 1.431 | .235 |
| | 2학년 | 36(18.0) | 114.89(12.10) | | |
| | 3학년 | 36(18.0) | 117.72(14.99) | | |
| | 4학년 | 92(46.0) | 120.25(14.07) | | |
| 임상실습 경험 | 있음 | 127(63.5) | 119.41(13.90) | 1.199 | .232 |
| | 없음 | 73(36.5) | 117.04(12.63) | | |
| 종교 | 있음 | 83(41.5) | 119.52(13.59) | 0.860 | .391 |
| | 없음 | 117(58.5) | 117.85(13.39) | | |
| 영어능력 | 못함 | 109(54.5) | 116.19(13.69) | 3.798 | .024 |
| | 보통 | 84(42.0) | 121.48(13.00) | | |
| | 잘함 | 7(3.5) | 120.00(8.66) | | |
| 외국인 친구 | 있음 | 44(22.0) | 119.39(13.19) | 0.468 | .640 |
| | 없음 | 156(78.0) | 118.31(13.58) | | |
| 다문화 대상자 | 있음 | 104(52.0) | 119.28(13.69) | 0.341 | .711 |
| | 없음 | 35(17.5) | 117.37(14.42) | | |
| | 해당 없음 | 61(30.5) | 117.97(12.63) | | |
| 다문화 교육 경험 | 있음 | 117(58.5) | 121.15(14.07) | 3.323 | .001 |
| | 없음 | 83(41.5) | 114.88(11.07) | | |
| 다문화 관심도 | 적음 | 66(33.0) | 116.05(15.13) | 2.748 | .067 |
| | 보통 | 96(48.0) | 118.74(11.30) | | |
| | 많음 | 38(19.0) | 122.39(14.77) | | |

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은 영어 능력 수준 (F=3.798, p=.024), 다문화 교육경험(t=3.323, p=.001)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.

[표2] 문화적 역량과 문화 간 의사소통의 정도 (N=200)

| 변수 | 항목 | M(SD) |
|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|
| 문화적 역량 | 총점 | 39.94(4.78) |
| | 문화적 민감성 | 12.43(1.92) |
| | 문화적 지식 | 6.98(1.88) |
| | 문화적 인식 | 12.35(1.87) |
|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| 총점 | 118.55(13.46) |
| | 의사소통기술 | 30.39(3.77) |
| | 의사소통지식 | 27.29(4.70) |
| | 의사소통태도 | 31.38(3.64) |
| | 의사소통인식 | 29.49(3.93) |

문화적 역량의 총평균은 39.94점(4.78)으로 항목 중 문화적 민감성이 12.43점(1.92)로 가장 높았고,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은 총 평균 118.55점(13.46)으로 항목 중 의사소통태도가 31.38점(3.64)로 가장 높았다.

[표3] 문화적 역량과 문화 간 의사소통의 상관관계 (N=200)

| | 문화적 민감성 | 문화적 지식 | 문화적 인식 | 문화적 기술 |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문화적 민감성 | 1 | | | | |
| 문화적 지식 | .007(.920) | 1 | | | |
| 문화적 인식 | .330(<.001) | .263(<.001) | 1 | | |
| 문화적 기술 | .180(.011) | .291(<.001) | .359(<.001) | 1 | |
|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| .372(<.001) | .399(<.001) | .547(<.001) | .550(<.001) | 1 |

대상자의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은 문화적 민감성(r=.372, p<.001), 문화적 지식(r=.399, p<.001), 문화적 인식(r=.547, p<.001), 문화적 기술(r=.550, p<.001)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.

[표4]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(N=200)

| 요인 | B | SE | β | t(p) | Adj. R ² | F(p) |
|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문화적 민감성 | 1.368 | 0.374 | .195 | 3.653(<.001) | .514 | 36.064(<.001) |
| 문화적 지식 | 1.533 | 0.380 | .214 | 4.033(<.001) | | |
| 문화적 인식 | 1.981 | 0.413 | .275 | 4.793(<.001) | | |
| 문화적 기술 | 2.759 | 0.445 | .339 | 6.204(<.001) | | |
| 영어능력 | -1.758 | 1.370 | -.065 | -1.283(.201) | | |
| 다문화 교육경험 | 2.563 | 1.384 | .094 | 1.852(.066) | | |

다중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(F=36.064, p<.001), 대상자의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문화적 민감성(β=.195, p<.001), 문화적 지식(β=.214, p<.001), 문화적 인식(β=.275, p<.001), 문화적 기술(β=.339, p<.001)로 나타났고, 설명력은 총 51.4%이었다.

V 논의

1. 본 연구 결과의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영역별 평점 중 의사소통 지식에 관한 능력이 가장 낮은 평점을 보였다. 이는 간호 대학생의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과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 이은미(2013)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으며 이런 결과를 보았을 때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지식에 관한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.

2. 본 연구에서 문화적 민감성(r=.372, p<.001), 문화적 지식(r=.399, p<.001), 문화적 인식(r=.547, p<.001), 문화적 기술(r=.550, p<.001)은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. 나와 다른 문화를 수용하려는 태도를 가진 간호대학생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높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적 기술 능력 역시 높았으며 이는 문화적 역량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생각된다.

3. 본 연구에서 문화 간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문화적 민감성(β=.195, p<.001), 문화적 지식(β=.214, p<.001), 문화적 인식(β=.275, p<.001), 문화적 기술(β=.339, p<.001)을 보인다. 이는 간호대학생에게 있어 네 가지 요인은 임상에서 다문화 대상자를 만났을 때 의사소통 능력, 문화적 역량과도 관계가 있음을 나타냈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 역시 51.4%의 높은 수치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.

VI 결론

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. 그 결과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문화적 역량 중 하위 영역인 문화적 민감성, 문화적 지식, 문화적 인식, 문화적 기술임이 나타났다. 이에 본 연구결과에 따라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과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문화권과 종교적 점점과 문화적, 전문적 배경에 대한 심층적 탐구,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사정 및 간호진단, 문화적 배경에 적합한 문화건강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. 이와 같은 문화에 대한 교육이 제공된다면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 될 것이다. 또한 본 연구는 C도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는 한계점을 수정 및 보완하여 다른 지역 내 여러 간호학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참여시켜 연구결과를 보다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다.